



겨울

Winter

김석환 / 건축사사무소 터·울
by Kim Seok-Hwan

들녘은 뱃가죽을 드리운채로
무거운 침묵을 시작하였습니다.
나는 인생의 길목에서 또다시
텅빈 들판을 지나가야 합니다.

은수원사시 하얀 살갓이
싸늘한 바람에 움츠리며
여윈 가지에 밤새내린 서리가
맑은 햇살에 이슬되어 반짝이고
쉬지않고 걸어보아도 빈 들판만 보입니다.

풀잎처럼 시들어간 추억들
흰눈이 흩날리고 낙엽마저 묻혀버리면
전설처럼 꿈이되어 피어나겠지요.

인적드문 동네에는 겨울도 길어
사립문도 여러날 닫혀있고
눈보라 몰아쳐 문풍지 떨려도
화롯불가에 피어나는 따스한 온기같이
살랑바람이 흄냄새 실어올때에
기도처럼 희망이 느껴지겠지요.